

「작은 노력, 큰 울림」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제주 소피아』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해 “승화”라는 주제로 미네르바 축제를 하였는데, 이번에 “울림”이라는 주제로 <哲學誌>를 발간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고, 축제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고, 체육대회나 학과 MT 그리고 답사활동 등을 통해서 선후배 사이의 그리고 동기 학우들 사이의 단합과 동료애를 보여 주면서 철학도들의 성실한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 같이 소중한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학과가 ‘보호학문 분야’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되었는데, 아마도 학우 여러분들의 이러한 성실한 노력과 철학과 모든 교수님들의 연구.교육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철학과의 모든 것을 『제주 소피아』를 통해 가장 의미 있는 유종의 미를 장식할 것이며, 2016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특히 이 『제주 소피아』가 철학과 학생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루이라벨은 “가장 심오한 행위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며, 이 행위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더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끔은 인간성 그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적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경쟁의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인간의 실존을 외소하게 하며, 젊은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사에서는 단 한 번도 인간이 '사유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었고, 인간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물질적인 것에 좌우된다는 것을 긍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지혜와 진리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란 육체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존재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산출하는 자임을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고독하고 긴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 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성이 지닌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도 분명한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노력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멀리는 세상의 국면을 변화시키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실하게 철학도의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큰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울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가장 미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젊음의 기운이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깊게 세상 속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암울함이 여러분의 철학적 순수성과 열정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의 삶에

■ 학과장님 말씀

는 수치심이나 허무나 절망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성의 가치를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가끔은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 동안에는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산 나무는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탐스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향기와 삶의 의미에 빛을 비추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주소피아>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수고해주신 회장단과 그 외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제주대학교 철학과 학과장 이명곤